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즉위



✚ 레오 14세 교황 주요 약력

1955년 9월 1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생
1977년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입회
1981년 8월 29일	종신서원
1982년 6월 19일	로마에서 사제 수품
1985~1986년	페루 출루카나스에서 선교 활동
1988~1998년	페루 트루히요에서 수도회 양성 담당 교구 신학교 교회법 교수, 교구 법원 재판관 본당 사제 등 다양한 직무 수행
1998~2001년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페루관구 관구장
2001~2013년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두 차례 임기 수행)
2015년 9월 26일	페루 치클라요교구장 주교 임명
2019년 7월	교황청 성직자성(현. 성직자부) 위원 임명
2020년 11월	교황청 주교성(현. 주교부) 위원 임명
2023년 1월 30일	교황청 주교부 장관 겸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 위원장 임명
2023년 4월	대주교 승품
2023년 9월 30일	추기경 서임
2025년 5월 8일	제267대 교황 선출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제로서 여러분에게 갑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기쁨을 섬기는 종이 되어,
하느님 사랑의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두 한 가족으로 일치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빛과 힘으로, 우리는 하느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 일치와 표징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곧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역사 앞에서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인류를 위한 화합의 누룩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웁시다.

한 백성으로서, 형제자매로서, 우리 함께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며 서로를 사랑합니다.”

5월 18일 제267대 교황 즉위 미사 강론 중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아밀로라이드 치료 효과 확인

부천성모 임상현 교수팀, 기존보다 부작용 적은 항고혈압제 사용 가능성 입증



임상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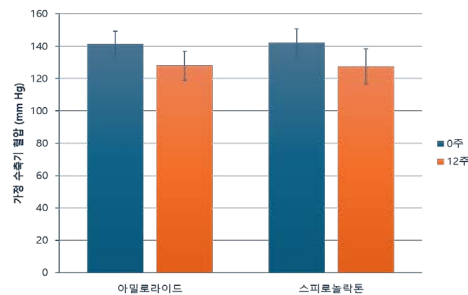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임상현 교수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한양대 연구팀과 함께 3개 이상의 항고혈압제를 사용하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4번째 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그동안 부작용 등으로 인해 4번째 항고혈압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던 환자들에게 혈압 조절을 위한 치료 선택지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30% 이상이 앓고 있는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이노제를 포함한 항고혈압제를 3제 이상 복용해도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고혈압 환

자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5~2배 높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추가적인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데, 현재 권고되는 '스피로놀락톤'은 신장 기능 악화, 성호르몬 교란에 의한 무월경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저항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118명을 대상으로 스피로놀락톤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아밀로라이드'의 혈압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자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아밀로라이드 치료 그룹과 스피로놀락톤 치료 그룹으로 나누어, 총 12주간 약제를 복용한 후 평균 가정 수축기 혈압과 진료실 목표 혈압 달성률 등을 측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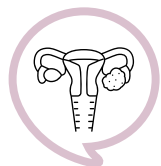
그 결과, 두 그룹 간 혈압 감소의 차이는 -0.68mmHg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혈압 감소 효과가 열등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12주째 가정혈압 변화도 두 그룹에서 잘 조절됐고, 혈압 변화량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



▲아밀로라이드 그룹과 스피로놀락톤 그룹 간 혈압 감소의 차이는 -0.68mmHg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며 약물 부작용 발생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 즉, 아밀로라이드가 스피로놀락톤과 비교해 수축기 혈압 감소 효과와 목표 혈압 달성률 등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 《자마(JAMA)》(IF=63.1) 최신호에 게재됐다.



난소암 재발 예측하는 新 바이오마커 첫 규명

서울성모 최윤진 교수팀, 영상 검사와 공간전사체 첨단기술로 난소암 재발인자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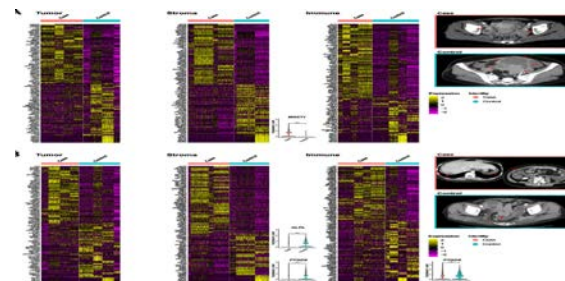
최윤진(왼쪽)·윤서연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윤진 교수(공동교신저자, 산부인과)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윤서연 교수(공동재

저자), 인천대학교 (3~4기)에 진단되는데 말기 난소암은 재발률이 높고, 재발을 거듭할수록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재발 예측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 환자 8명을 재발 환자와 재발되지 않은 환자로 나누어 조사했다. 수술 전 CT영상 검사 결과, 양측성 난소암, 난소암 크기, 결절성 복막 전이, 결장 옆 고랑의 복막 전이, 광범위한 복막 전이 위치, 복막의 비후 정도에 따라 판단되는 난소암의 복막으로의 전이 여부에 따라 공간전사체 검사에서 유전자의 발현 차이가 확인됐다.

그 결과, 염증 반응조절(NF- κ B를 통한 TNF- α 신호)와 세포질의 산화적 인산화 경로가 재발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재발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PTGS 유전자가 적게 발현되면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확인됐고, 수술 전 CT에서 복막 전이의 범위가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또한, 화

학주성 관련 마커인 CXCL14, NTN4와 면역 조절 관련 마커인 DAPL1, RNASE1가 좋은 예후 인자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개인 맞춤 의학 및 바이오마커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Biomarker Research》(IF=9.5)에 최근 게재됐다.



뇌 질환 인지기능 환자, 두개골 손상에도 '전자약' 치료 가능성 확인

서울성모 임성훈 교수팀, 경두개직류자극 치료 대상 확장 기대



임성훈(왼쪽)·윤미정 교수

가톨릭대 의대 재활의학과 서울성모병원 임성훈 교수 (공동교신저자), 성빈센트 병원 윤미정(제1저자) 교수, 뉴로핏 김동현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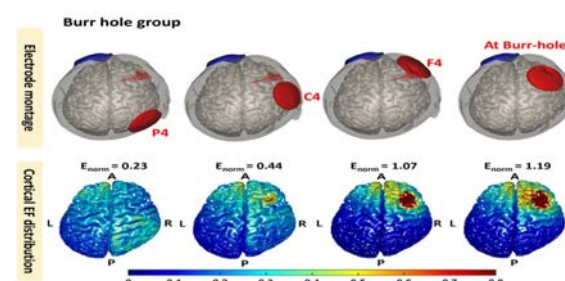
사(공동교신저자), 김형택 석사, 미국 텍사스 대학 Yasin Y. Dhaher 박사 연구팀이 전자약의 일종인 '경두개직류자극'으로 두개골이 손상된 환자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경조절치료로 사용되는 경두개직류자극 치료는 외상 및

수술 등 사유로 인해 두개골에 손상이 있는 환자는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해당 치료는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여 전류 저항성이 높은 두개골을 통과하면서 분산되어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도달시키는 방식이나, 두개골 손상이 있는 경우 손상 부위로 전류의 흐름이 변하게 되어 치료 목표점이 아닌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MRI 검사 영상을 분석해 디지털 뇌 모델을 만들고, 가상환경에서 경두개직류자극치료를 시뮬레이션하며 뇌 피질에 영향을 주는 전기장 및 전류의 흐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치료 중 뇌피질에 의도하지 않은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두개골 구멍인 베클에서 60mm 떨어져 전극 위치를 조절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기장 강도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일환이자, 가톨릭중앙의료원



▲베클 수술 위치와 경두개직류자극 시 전극에 따른 전기장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텍사스 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의료 정보 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인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IF=7.0)에 최근 게재됐다.



65세 이상 신규 당뇨병 환자 2배 급증, 체계적 관리 필요

성빈센트 윤재승·김규호 교수팀, 10년 이상의 장기 당뇨병 환자도 3배 증가



윤재승(왼쪽)·김규호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윤재승·김규호 교수, 숭실대학교 한경도 교수팀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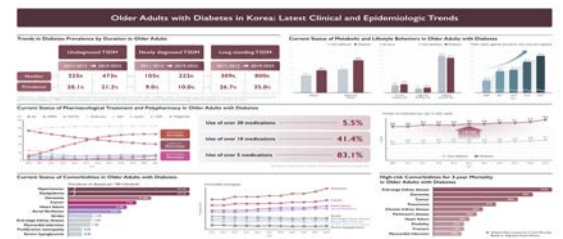
받아 노인 당뇨병 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특성을 심층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신규 당뇨병 환자가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이 약 260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65세 이상에서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은 신규 환자는 2011~2012년

10만 명에서 2019~2022년 22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당뇨병 환자도 3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노인 당뇨병 환자의 75% 이상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치매, 심부전, 만성콩팥병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노인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은 말기신부전·치매·암·폐렴 등으로, 당뇨가 없는 노인보다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0~1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유병률이 높고 사망 위험이 큰 동반 질환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노인 당뇨병 환자들은 평균 9개 이상의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뇨병이 없는 노인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특히 20개 이상의 약제를 복용하는 노인 당뇨병 환자 비율이



5.5%에 달했다. 더불어, 65세 이후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중 67.8%는 진단 후 첫 1년 동안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약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말기신부전, 치매, 독거노인, 고위험 음주자 등은 약물 복용 순응도가 현저히 낮았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국제 학술지 《Diabetes & Metabolism Journal》(IF=6.8)에 게재됐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환자 중심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고태훈 교수팀, 개인정보 보호·병원 간 공유 위해 '탈중앙화'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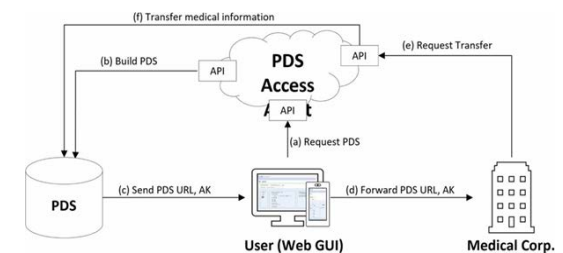
고태훈 교수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의 고태훈 교수(가톨릭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와 공동 연구팀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방식보다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병원 간 정보 공유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탈중앙화' 기반의 건강정보 시스템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료정보 기술의 실질적인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진료 기록을 포함한 환자의 건강정보는 각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저장되므로 병원이 다르면 기록을 옮기기도 어렵고,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기록이 분산되어 있으며 해킹

등의 보안 위협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정보를 병원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저장하고, 필요할 때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 시스템의 두 가지 핵심 기술은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와 탈중앙 신원 인증 기술(DID)이다. PDS는 각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이 아닌 개인 중심의 저장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DID 기술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신원 인증을 탈중앙화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병원이 인증 기관을 거쳐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DID를 사용하면 개인 인증서 하나로 본인임을 증명하고, 병원 간에도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 제공 시에는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도 함께 적



▲ 자체 추천형 개인 건강기록 관리 시스템 업무 흐름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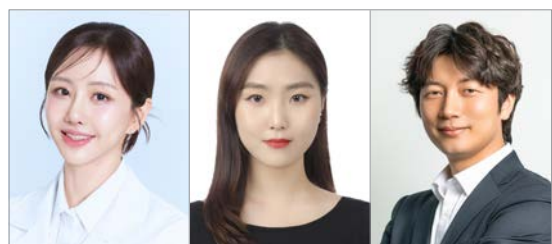
용되어, 꼭 필요한 정보만 보호된 형태로 제공된다.

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생명정보학 분야 SCIE 저널 《Computational and Structural Biotechnology Journal》(IF=6.0)에 게재됐다.



다중 장기칩 데이터 활용해 인체 약물 반응 예측 모델개발

가톨릭대 의대 한성필 교수팀, 동물실험 대체 가능성 및 신약 개발 속도 향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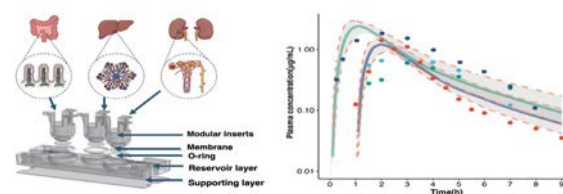
최수인 연구교수·이정현 연구원·한성필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가톨릭임상약리학연구소 한성필 교수(교신저자), 최수인 연구교수(공동 제1저자), 이정현 연구원(공동 제1저자)은 '다중 장기칩'과 '생리 기반 약동학 모델(PBPK)'을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로써 실제 사람 몸속에서 약물이 어떻게 흡수되고, 어디서 대사(분해)되며, 어

떻게 배출되는지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구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보완 가능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은 줄이며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 장기칩'이란 사람의 장기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작은 칩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람의 장, 간, 신장 세포를 각각 3차원 구조로 배양한 후, 이 장기들이 몸 안에서처럼 서로 연결된 상태로 약물 반응을 실험할 수 있다. 연구팀은 체내 장기 크기, 혈류량, 대사 능력 등 실제 생리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약물 농도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생리 기반 약동학 모델'을 사용해 약물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를 예측했다.

그 결과, 약물이 혈액 내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혈중 농도-시간 곡선'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 MPS 칩(왼쪽)에서 측정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한 PBPK 모델의 혈중 약물 농도 예측 결과(선)와 실제 임상 데이터(점)가 높은 정확성을 보임

결과와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예측된 약물의 최고 농도(Cmax),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의 전체 노출량(AUC, 면적 아래 면적) 같은 핵심 지표도 실제 임상과 거의 같아, 연구 모델의 정확성과 실용성을 입증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BioChip Journal》(IF=5.5)에 게재됐다.



PEOPLE

어제 수술한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고, 내일 수술할 환자를 가장 많이 걱정하며, 환자의 고통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 주는 의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상돈 교수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의사의 첫걸음입니다.”

수술 시간으로 체력은 필수”라며, “테니스를 통해 체력 유지도 되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운동 특성으로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 주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만나고 있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좋은 게 함께 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 준다.”며, “테니스를 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관절·허리 등 안 좋은 주민을 보면 예약을 잡아주기도 하는데, 병원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니스보다 더 김 교수가 아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독서’다. “지갑은 두고 나가도, 책은 반드시 옆구리에 끼고 다닙니다. 테니스가 몸을 움직이게 한다면, 책은 정신을 세우게 합니다.” 그에게 테니스와 독서는 삶의 균형추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도서관에 자주 방문하고 독서를 즐긴다고 한다. 책 1권을 보통 3번 이상 읽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책을 끝까지 정독하고, 두 번째로 중요 내용을 메모하며 읽고, 세 번째로 독후감을 작성한다고 한다. 이렇게 독서를 하면 책의 내용과 저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신경외과 척추·말초신경 수술의 권위자, 김상돈 교수

“우리는 주로 업적이라 하면 적어도 인류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이정표를 말하는데 저도 나름 연구는 했지만, 저에게 업적은 없습니다. 제 연구는 결국 저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겸손하게 시작된 김상돈 교수의 말 속에는, 30여 년간 환자를 위해 쌓아온 묵직한 신념이 배어 있었다.

현재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상돈 교수는 일본 아이치대학 부속병원에서 척추 전임의를 거쳐 미국 베일러대학교 신경외과에서 연수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 MBA까지 이수한 신경외과 전문의를 넘어, 병원 서비스와 환자 경험까지 고민하는 의료전문가다.

김상돈 교수는 척추질환과 척추외상 분야의 권위자다. 환자 맞춤형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적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디스크 환자 중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김 교수는 수술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으며, 환자마다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한다.

그는 환자에게 무턱대고 시술이나 수술을 권하는 대신, 충분한 안정을 취하게 하고, 바른 자세와 운동법을 철저히 교육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을 ‘수술할 줄 아는 내과의사’라고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김상돈 교수는 환자의 병력 청취에 공을 많이 들이며 소통하는 의사로 유명하다. 칭찬 사연의 단골 주인공이자 거의 매년 CS 스타로도 선정되고 있다.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 ‘부천성모병원의 돈사마’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다.



연구보다 사람... 그리고 의료 서비스 디자인

김 교수는 최근 임상 연구는 물론 전공의 수련교육과 환자 경험, 의료 서비스 디자인에 집중해 왔다. 그가 CS 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결과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에서 경기도 1위, 전국 7위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김 교수는 그 공로를 모두에게 돌렸다. “환자경험평가는 결코 리더나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차 요원부

터 자원봉사자까지, 모든 교직원들의 환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키케로의 말처럼,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는 직원 몰입도를 높이는 작은 행동 변화를 설계하고, 일상 안에서 스며들게 하는 데 주력했다. 그제 곧 병원 문화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는 평소 교직원들과의 만남을 즐겁고 기쁘게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 간의 벽을 허물게 한다. 이렇게 벽을 허물어 야사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에서 어려울 때 자발적으로 서로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가 된다고 김 교수는 이야기한다.



테니스와 독서, 그리고 균형 잡힌 삶

김상돈 교수의 이름을 들으면 ‘테니스’를 떠올리는 이들도 많다. 1982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테니스를 시작했다는 그는 군의관, 일반 유학, 미국 연수 시절까지... 세계 어디서든 테니스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미국 연수 중에는 매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경기를 하기도 했다. 현재도 직장 내 테니스 클럽, 지역 주민 클럽, 의대 동문 모임,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 모임 등에서 일주일 2~3회 테니스를 친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향상, 라포 형성 등은 병원과 업무에도 시너지를 내고 있다. 김 교수는 “신경외과는 긴



환자와 함께 호흡하는 ‘공감’의 철학

그는 공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Sympathy(동정): 상대의 고통을 알고 마음 아파하는 것

Empathy(이입): 상대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는 것

Compassion(연민과 행동):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

“의사는 Sympathy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Empathy를 넘어, Compassion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환자들은 환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 가짐이야말로 의료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환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치료를 고민하는 그는, 단순한 의사를 넘어 환자들의 ‘찡전’, ‘가족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김상돈 교수를 만나는 것은 단순한 진료 이상의 경험이다. 아픔을 공감하고,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짜 의사’를 만나는 일이다.

김상돈 교수에게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의 의사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취미 그 이상의 활력소! 다육식물의 푸릇푸릇한 매력

대전성모병원 병동2팀 김숙이 간호사

‘식집사’는 ‘식물’과 ‘집사’를 합친 말로, 반려식물을 가족같이 돌보며 애정을 쏟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대전성모병원의 김숙이 간호사는 10년 넘게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는 일명 ‘다육이 식집사’다. 알록달록한 색과 다양한 모양이라는 매력을 가진 다육식물 기르기는 힐링할 수 있는 취미로 주목받고 있는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는 김숙이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대전성모병원 최고령 경력자로 입사해 현재까지 완화의료병동(53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분들께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며, 증상 조절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영적 등 다학제적 돌봄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무와 함께 석사 논문을 병행하고 있으며 내년 졸업이 목표입니다. 작년부터는 호스피스 일반인&전문인 교육을 맡아 진행했고, 제 취미를 살려 간호부의 지원을 받아 신규 간호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육이 심기 체험’을 진행해 인기가 많았으며, 2023년에는 지역신문에 간호사 칼럼까지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소문난 ‘다육이 식집사’시라고요?

제가 다육이를 접하고 키운 지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돌보고 있는 종류만 해도 국민이, 매혹의 창을 비롯한 창 종류, 하월시아, 선인장 등이 있고 집에서 키우기엔 너무 많아서 현재는 다육이 전용 공간인 하우스에 약 3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를 살려 유튜브 ‘다육널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구독자 수도 6,700명 정도 됩니다.



다육식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2014년도에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크기가 너무 커서 자궁 적출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나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몸이 주는 신호를 모른 채 ‘나 자신에게 너무 혹독했나’하는 자괴감과, ‘나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환우분들을 돌볼 수 있을까’하는 양가감정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운 내라며 사다준 ‘담설’이라는 다육이가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해 말라있는 상황에서도 떨어진 일 하나가 살갗다며 뿌리도 내리고 싹도 틔우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면서, 다시는 간호사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뒤로 다육이를 본격적으로 돌보며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육이 돌보기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우리는 흔히 ‘반려동물’, ‘반려식물’이라고

부르는데 반려라는 말은 가족 같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식물, 동물이지만 돌봐주면서 힘들이나 고됨보다 행복과 즐거움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식물이라 아파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도 있지만 아픈 다육이를 돌봐주면서 잘 자라고 예뻐지고 건강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서 받는 기쁨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간호사도 돌봄을 사명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때론 힘들 때가 많지만, 환우분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 하길 잘했다는 사명감도 듭니다.

다육이를 키우면서는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듭니다. 분갈이를 하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등 다육이를 가꾸고 돌보는 과정에서는 저절로 ‘무념무상’의 마음가짐이 들게 됩니다. 그 덕분에 하루에 있었던 나쁜 일들은 흘러 보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배울 일에는 교훈을 얻으면서 마음 수련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제는 다육이를 돌보는 게 취미를 넘어 나를 재충전하는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 지인들뿐 아니라 주위에 아픈 분들에게 선물로 다육이 화분을 나눠주고, 나눔받은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에서 보람과 함께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오리엔테이

션 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육이 심기’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인기가 많아서 3회차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육식물이 주는 행복을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또다른 행복이자 보람입니다.



김숙이 간호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전공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중요한 가치로 지위, 명예, 돈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평범한 일상과 사랑하는 이의 소중함, 주어진 삶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병동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들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욕심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소가 외나무다리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고된

길 위를 서로 의지해 가는 것이 인생이듯, 환자들과 함께 마지막 삶의 여정을 같이 동행하는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위 동료들이나 환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저에게 대전성모병원은 단순히 일하는 직장을 넘어서 큰 의미로 와 닿습니다. 호스피스를 하고 싶었던 저에게 완화의료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를 채용해 주시고 나이가 많은데도 친근하고 배려해 주며 편하게 대해주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호스피스 케어에 만족해 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진단받은 지 얼마 안돼 호스피스에 입실한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임종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보호자들을 볼 때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호스피스병동에서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을 뿐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치료를 하며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의사, 간호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완화 보조인력 등 ‘다학제적 전인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호스피스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CMC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다

연구자와 함께 성장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년’

연구 역량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비 다각화 추진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우리대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 인재 육성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설립된 이후 연구자와 함께 걸어온 20년 동안 시대가 요구하는 연구의 패러다임과 정부정책의 흐름에 발맞춰 연구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설립 초기에는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자산으로’라는 모토로 교수 연구활동 지원 및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면, 현재는 연구중심대학, 연구중심병원 등 연구를 핵심 자원으로 주목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다’를 기조로 연구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연구자본 확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성장은 연구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년간 연구실적은 논문, 연구과제 모두 4배 이상 증가했고, 특허와 기술이전 실적은 10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연구를 통한 기관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 산학협력단은 연구자의 연구 수행 과정에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서를 세분화하고 점차 조직을 확대해 왔다. 2022년부터는 음

니버스 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병을 주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 중이며, 가톨릭대학교 및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산하 8개 병원 연구자들이 창출한 수많은 연구 성과가 단순히 연구에 그치지 않고 무한한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크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신진 연구자들을 위해 ‘CMC B-Light!’라는 연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옴니버스파크 입주기업 등 다양한 내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확장시켜 산·학·연·병 클러스터로의 역할을 공고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우수한 연구자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영상 인터뷰 ‘I Dear CMC’와 숏폼 형태의 연구자 영상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내 연구자 검색(Research-Tree) 시스템을 오픈해 연구자의 연구 분야, 최근 연구 실적 등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에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한 ‘연구행정 전문가 경진대회’에서 기관 부문 특별상, 개인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해 연구개발비 관리 행정력과 전문성이 우수함을 입증했으며,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이공계 연구생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돼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차세대통합연구관리시스템(TRS) 및 전자연구노트를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로 연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산학협력단은 지난 2월 설립 21주년을 맞이해 대학 내 우수연구자 75인을 초청해 격려하고 산학협력단의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조석구 산학협력단장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성장은 연구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연구과제 관리의
A부터 Z까지
체계적 관리 및 운영



공동연구 인프라 제공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연구비 집행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부적정 집행 예방



연구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기획 및 운영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연구 산출물 권리보장



산학협력단
중앙구매계약 및
자산관리 체계화



산학협력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관리

림프종, ‘꿈의 항암제’ CAR-T로 새 희망 연다

여의도성모병원, CAR-T 치료 월 3.5건으로 국내 이례적 실적 기록
완전관해 및 유지되는 사례 증가, 재발성 림프종 치료 패러다임 전환 이끌어

#1

김 모 환자(58세, 여)는 재발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기존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으나, 카티 세포치료 후 ‘완전관해’ 판정을 받았다. **치료 후 10개월째 재발 징후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이다.

#2

이 모 환자(34세, 남)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포함해 5종류의 항암제로 치료를 받았으나 재발했다. 이후 카티 세포치료를 받고 1개월 만에 완전관해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8개월째 완전관해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치료 전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직장 복귀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최첨단 면역세포치료인 CAR-T 세포치료를 통해 국내 림프종 치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3월 CAR-T(킴리아 카티 및 임상연구용 카티) 도입 이후 총 42명에게 주입 또는 주입 예정으로, 도입 12개월 만에 대략 월 3.5건을 시행한 것이다.

CAR-T 도입 후 1년 만의 이러한 성과는 국내에서 드문 규모이며 월 3.5건 이상인 병원도 흔치 않다. 국내 CAR-T 치료의 접근성이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실적은 여의도성모병원이 국내 치료 환경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난치성 혈액암 림프종 환자 생명 구해

여의도성모병원 림프종센터는 2024년 3월 6일 임상용 CAR-T 첫 주입을 시작한 이후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총 42명의 환자에게 CAR-T 세포치료를 계획하고, 이 중 12명에게 치료를 완료했다. 현재까지의 치료 결과, 약 85%의 높은 초기 반응을(완전관해 및 부분관해)을 보이고 있으며, 약 65%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치료 반응이 유지되고 있어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혁신적 치료 모델로 국내 의료 환경 개선

여의도성모병원 림프종센터는 서울성모병원 특수 세포 치료시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제조 및 관리 기준)와 연계한 CAR-T 치료 모델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의 CAR-T 치료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규제 준수와 고가의 시설투자가 필수적이었으나, 여의도성모병원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했다.

이 모델은 타 의료기관에서도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도 CAR-T 치료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CAR-T 치료의 제도적·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첨단 세포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라는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항암치료와 달리 CAR-T 세포치료는 일회성 주입으로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자 자신의 면역체계를 활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므로 기존 항암제와는 차별화된 치료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CRS)과 뇌신경독성(ICANS)과 같은 세포치료제 고유의 부작용이 초기 치료과정의 주요 난관으로 작용해 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이러한 CAR-T 치료 관련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인 치료연계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상업용·임상용 CAR-T 병행 도입, 임상과 연구 시너지로 CAR-T 치료 고도화

전영우 교수(혈액내과, 림프종센터장)는 “여의도성모병원 림프종센터는 상업용 CAR-T 치료제뿐만 아니라 임상용 CAR-T 치료제도 함께 도입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치료제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는 동시에 더 진보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연구개발도 병행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항상 최신의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CAR-T 세포치료는 기존 항암치료와는 차별화된 혁신적 접근법으로, 환자 개개인의 면역체계를 활용한 맞춤형 정밀 의학의 좋은 예”라고 말했다.

국내 CAR-T 치료 선도 기관으로서 도약

여의도성모병원 림프종센터는 최적의 최신 치료제 도입 및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상업용 및 임상용 CAR-T 치료제의 균형 있는 도입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발성 골수종 및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질환에서도 CAR-T 세포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며 추가적인 치료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CAR-T 치료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CAR-T 치료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의도성모병원 림프종센터

여의도성모병원 림프종센터는 국내 최초로 림프종만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특화 센터다. 현재 의학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약 90여 종류의 모든 호지킨, 비호지킨 림프종은 물론이고, 캐슬만씨병, 키쿠치병과 같은 림프증식성질환까지 포괄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림프종은 단순히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아형(Subtype)들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이다. 림프종센터는 수년간 축적된 경험을 지닌 혈액내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첨단 분자진단 기술과 최신 치료법을 도입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CAR-T 치료를 비롯한 첨단 면역치료와 표적치료제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하여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전화 : 1661-7575)



재미있는 인체 이야기

평소 항문이 닫혀 있는 것은 내 의지일까?



항문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근육인 괄약근이 존재하는데, 이는 외괄약근과 내괄약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괄약근은 체성 신경의 지배를 받아 내 의지대로 항문을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게 하며 의식적으로 대변이나 가스 배출을 참을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내괄약근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대변과 가스 배출 시 이완되면서 항문을 열리게 하고 평소에는 의식적으로 항문을 조이지 않아도 닫혀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으며, 무의식적으로 대변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항문은 여러 요인으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데, 장시간 운전, 무리한 운동, 수분 부족, 변비, 심지어 불규칙한 식사까지도 항문 부위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치질은 흔히 항문 질환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치핵, 치열, 치루가 있다.

우선 치핵은 항문 내외부 혈관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로, 변비나 배변 시 무리한 힘이 원인이 된다. 내치핵은 출혈이 주 증상이며, 외치핵은 통증과 부종이 심한 경우가 많다. 증상과 병기(1~4기)에 따라 보존적 치료에서 수술적 치료까지 폭넓은 접근이 가능하다.

치열은 단단한 변으로 인해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질환으로, 배변 시 극심한 통증과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는 연고나 약물치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만성화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치루는 항문 주위에 고름이 터지며 생긴 통로(누공)로 인해 지속적인 분비물과 불편감을 유발하며, 거의 모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수술로는 치루 절제술, 절개술, 세톤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치루 절제술은 효과가 뛰어나 재발률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치질은 조기 진단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다. 반면 증상을 방치하면 통증과 출혈은 물론, 대장암과 혼동될 수 있는 혈변까지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평소 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좌욕을 통해 항문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치질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감수: 의정부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승엽 교수)

Health&Issue

땀 나고 더워지는 날씨, '신우신염' 주의보

신우신염은 신장의 세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로감염증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급증하는 질환이다. 무덥고 땀이 많은 여름철은 세균 번식이 쉬운 온도와 습도를 갖게 되고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며 소변이 방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해부학적 특성상 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고 질 혹은 항문과 가까워 세균에 의한 하부요로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급성 신우신염

신우신염은 대부분 급성 신우신염으로, 방광염 등 하부 요로감염을 일으킨 대장균 등의 세균들이 요로를 상행해 신장과 신우에 세균 감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게 된다.

● 발열 · 오한 · 옆구리 통증이 주 증상

방광염에서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뇨통, 빈뇨, 잔뇨감 등의 하부요로감염 증상들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뚜렷한 요로감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주로 표현되면서 감기나 몸살 등의 증상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발열과 오한 등이 있고 옆구리나 늑골척추각을 두드릴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신우신염을 의심할 수 있다.

● 세균 침입 막고, 배출하며 예방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소변량을 충분히 배출하며, 방광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 소변을 참지 말고 소변을 바로 본다. 배변 후에는 회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아서 대변의 대장균 등에 의해 비뇨기계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성교 전후에 성기 주변을 씻으며, 성교 후에 바로 배뇨하여 소변의 흐름으로 침입한 세균을 배출한다.

TIP. 신우신염, 방광염과 헷갈리지 마세요!

신우신염

배뇨 증상과 함께 열이나 오한, 구토, 구역, 두통과 같은 전신 증상
더불어 심한 허리 또는 측복부 통증 동반

방광염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긴박뇨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뇨
하루 8번 이상의 빈뇨나 혈뇨

성빈센트병원 감염내과 **위성현** 교수

진료 분야 감염질환, 성인 예방접종, 해외여행 관련 감염병
진료 시간 [오전] 화, 목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하신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 (2025.6.20.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권*은
김*정
정*희

▶ 당첨자분들께는
휴대폰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간호사로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간호부와 간호사회는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실무 역량 강화, 정서적 치유, 가족과의 유대 증진 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사랑의 편지 행사, 제25회 간호학술세미나 개최, 카페 음료 이벤트 등이 진행됐으며 음악 피자를 통해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나만의 향수 만들기 공방, CGV 골드클래스 영화 관람, Wine Class & Fine Dining 등 간호사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춘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융합형 연구 통해 간질환 치료법 개발 도전

소화기내과 양경모, 남희철 교수
‘글로벌 의사과학자’ 선정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양경모 교수와 의정부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남희철 교수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초-임상의학 융합형 연구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연구진은 향후 약 3년 동안 총 5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양경모 교수는 ‘알코올성 간질환에서 간세포와 비알코올성 간 상호작용을 통한 병태생리 규명 및 치료 전략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최근 음주성 간질환이 증가하지만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법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타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희철 교수는 ‘대사이상 지방간에서 아디포카인에 의해 유도되는 모노카르복실레이트 운반체 1과 2(MCT-1/2)의 세포 대사 재프로그래밍 조절자로서의 역할 규명’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를 통해 비만, 당뇨병, 지방간을



양경모(왼쪽) · 남희철 교수

포괄하는 대사질환 관리의 새로운 치료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양경모 교수는 “이번 연구가 알코올성 간질환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희철 교수는 “깊이 있는 병인 탐색과 중개 연구를 통해 지방간 및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타깃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 우수기관 재확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성의교정,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4월 30일 2025년 상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 평가 · 인증’에서 재인증 획득에 나란히 성공했다.

IRB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 보호를 위해 임상연구 수행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연구의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CMC 내에는 의료원이 운영하는 ‘CMC 중앙IRB’를 비롯해 성의교정과 8개 부속병원까지 총 10개의 IRB가 운영 중이다.

‘IRB 평가 · 인증제’는 생명윤리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기관의 IRB를 평가하고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의 유효 기간은 2025년 3월 11일부터 2028년 3월 10일까지이며, 하반기에는 은평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이 재인증 평가를 앞두고 있다.



성빈센트 · 은평성모,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TOP3 논문 선정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대장항문외과 유니나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김형진 교수팀이 미국 의학협회 공식 학술지 《JAMA Surgery》에서 선정한 ‘2024년 조회 및 다운로드 TOP 3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JAMA Surgery》는 전 세계 외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지수가 높은 국제 학술지로, 2024년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조회 및 다운로드 TOP3, 주목받은 연구(알트메트릭 지수) TOP3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유니나 · 김형진 교수팀의 논문 ‘상처보호기 사용의 복부 수술 후 상처감염 예방 효과’는 연간 조회 및 다운로드 3위(23,471회)를 기록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5개 병원 및 전국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5년 동안 4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유니나(왼쪽) · 김형진 교수



서울성모병원 난치성 루푸스, CAR-T 국내 첫 임상 시작

류마티스센터 주지현 · 혈액병원 윤재호 교수팀 자가면역질환 완치 도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면역항암제 중 하나인 CAR-T 세포치료를 전신성 홍반 루푸스 환자에 국내 처음으로 투여하는 임상연구를 시작했다. 40년 전 국내 최초로 류마티스 진료를 시작했던 서울성모병원이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완치에 도전하는 것이다.

류마티스센터 주지현 · 이봉우(류마티스내과), 혈액병원 윤재호(혈액내과) 교수팀은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다른 치료수단이 없는 40대 여성 루푸스 환자에 올해 3월 CAR-T 치료제를 투여했다.

3월 투여 이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4월 14일 외래진료 결과, 환자는 급성 부작용 발생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했으며 면역억제제를 중단해도 루푸스 관련 지표들(단백뇨, 보체, 항DNA 항체 등)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윤재호 교수는 “혈액질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CAR-T 세포 치료법으로 만성신부전으로 악화될 수 있었던 난치성 루푸스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다학제 진료 참여로 난치성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성과를 밝혔다.

주지현 교수는 “최근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루푸스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90~95%까지 보고되고 있으나, 일부 환자는 폐, 심장, 신장, 뇌와 같은 주요 장기에 루푸스가 침범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이번 임상을 시작으로 기존 약제에 반응하



지 않아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난치성 루푸스 환자가 완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서울성모병원의 중점 연구 분야 중 하나인 ‘난치성 자가면역’과 ‘세포치료’ 분야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루어 낸 결과물로 평가된다. 서울성모병원은 향후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와 같은 창의적인 치료 사례를 더 많이 도출할 계획이다.



성의교정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성료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최근 2025학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이 병원에서 본격적인 임상실습을 앞두고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소명, 그리고 환자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는 전통적인 행사다. 학생들은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간호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여의도성모병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는 지난 5월 27일 천주교 안동교구에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영남권 산불 피해로 주거 마련, 생계 고민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며, 건강한 일상 회복을 바라는 교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결정하게 됐다. 성모자선회는 교직원들의 자발적 후원 모임으로 급여 공제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며 다각적 환자 지원과 나눔으로 CMC영성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소방청장, 119Heli-EMS 현장 방문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소방청 허석곤 청장이 지난 4월 16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소방청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의사 탑승 헬기 이송 시스템(119Heli-EMS)'의 현장 작동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의료계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한 공식 일정으로, 민·관 중증응급환자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도쿄과학의과대학 전문가들 초청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3월 4일 일본 도쿄과학의과대학 병원의 모리시타 코지 구멍구급센터장, 코지마 미츠아키 부센터장 등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권역외상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 30여 명이 참석해, 일본의 선진적인 구멍구급의료 시스템을 직접 접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은평성모병원

가정의 달 맞아 진료협약기관 방문



은평성모병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산하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파란꿈터, 초록꿈터) 및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를 방문해 진료협약기관과의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병원의 설립 정신인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가정의 달 음악회 열어



인천성모병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옥상정원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인천시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바이올린·플루트 앙상블의 감미로운 연주로 시작됐다. 음악치료사도 함께해 환자와 가족들이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정



* 기관별 / 가나다 순

대한이과학회 최우수 연제상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시내·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한재상 교수팀이 제70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연제상을 받

았다. 연구팀은 돌발성 난청과 같은 급성 귀 질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법의 약물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ICKSH 2025 베스트 포스터상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이성은 교수 연구팀이 '2025 대한혈액학회 국제 학술대회(ICKSH 2025)'에서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로 '베스트 포스터상'을 받았다.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고문단 학술상



여의도성모병원 영상의학팀 김정완 박사선사가 제35차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문단 학술상'을 받았다. 김 박사선사는 3D 프린팅 기술을 자기공명영상(MRI) 턱관절 검사에 적용한 보조기기 개발 연구를 통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각막학회 한국 대표 운영위원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나경선 교수가 아시아 각막질환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 학술기구인 아시아각막학회 한국 대표 운영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는 나 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우수 초록상



의정부성모병원 외과 전철호 교수가 제45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우수 초록상(Best Abstract Award)'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전철호 교수가 발표한 연구 초록의 창의성과 임상 적용 가능성, 연구의 완성도를 높게 평가한 결과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조항주 교수가 지난 3월 1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항주 교수는 이번 위촉을 통해 외상 및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예정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황세환 교수가 제99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황 교수는 최근 5년간 《SCI》나 《SCIE》 등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주저자로 총 90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했으며, 학술지의 영향력지수와 인용도 지수를 의미하는 Impact Factor(IF)도 243.8점에 달해 독보적인 실적으로 학술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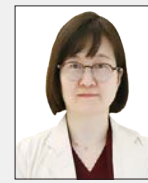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



은평성모병원 신영철 총무팀장이 '2025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았다. 신영철 팀장은 1995년 성의교정 입사 이후, 지난

30여 년간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기관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두며 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근골격영상의학학회 학술상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이신우 교수가 대한근골격영상의학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척추와 골반 부위의 자기공명 영상과 컴퓨터 단층촬영' 논문 및 3차원 자기공명지문법을 활용해 골 전이와 적색골수를 정량적으로 구분할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 주목받았다.

혈액사업유공 표창, 헌혈증 100매 기부



인천성모병원 재무팀 최인호 책임사원이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최 책임사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혈 23회, 혈장 24회, 혈소판혈장 87회 등 총 134회의 헌혈을 통해 지역 사회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 왔다.

스포츠의학회 우수 포스터상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지종훈, 김보성 교수팀이 '제44차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지 교수팀은 '어깨 석회성건염 환자들에게서 힘줄부터 뼈(상완골두)로 석회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자기공명영상과 관절경 소견을 이용해 확인하고, 상기 증례를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소속사 목프로덕션, 공연 수익금 기부

J.S.Bach 기금 설립해 소아 환우를 위해 사용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그의 소속사 목프로덕션이 지난 5월 16일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자선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고양 이람누리 이람음악당에서 진행한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의 수익금을 기부했다.

임윤찬과 목프로덕션의 기부금은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한 이번 공연에서 착안하여 'J.S.Bach' 라는 이름으로 이번 기부금에 대한 전용 기금을 신설했으며 소아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윤찬은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 및 3관왕에 오르며 2023년 《포브스》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데카 레이블로 발매된 [쇼팽 : 에튀드] 음반으로 'BBC 뮤직 매거진 어워드 2025'에서 올해의 음반, 올해의 신인, 기악 부문까지 3개 부문을 수상한 피아니스트다.

그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인 이하느리와 우리 모두의 뿌리 바흐를 연주했고, 그 위대한 음악들의 여운이 누군가에게 온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라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아 환우들의 치료 지원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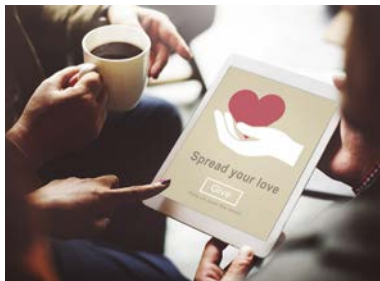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조성호 학부모, 서울성모병원 자선기금 1천만 원 기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의 학부모가 불우한 환우를 돕기 위해 최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선기금에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조성호 기부자는 스스로 열심히 살아온 삶에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의미를 더하고자 기부로 이를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평생 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생각으로 자선기금에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그는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해 공부 중인 자녀가 있어 관심이 가는 만큼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부로 돈을 쓰는 결정에 주저했던 과거를 돌아본 만큼 우리 가족에게도 보람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부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 되고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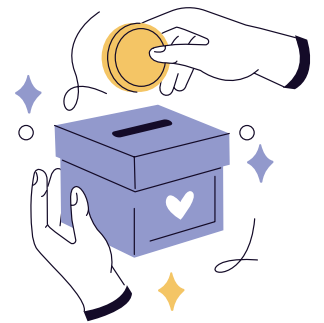
기부로 나누는 손자의 따뜻한 마음 생일 선물로 받은 용돈 기부

익명의 학생이 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 사무국에 방문하여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 기금으로 70만 원을 기부했다.

미국에서 수학 중인 그는 모교에도 기부하는 등 평소 후원에 관심이 많았다. 이번 기부는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투병 중인 할아버지 장재홍 님에게 정성 어린 진료를 보여준 의료진들의 모습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결심했다고 한다.

기부금과 함께 병원에 감사함을 전하는 편지도 작성해 전달했다. 편지에서 그는 "할아버지를 위한 세심한 진료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생일 용돈을 기부합니다."고 말하며 "병원에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며 기부 계기와 소감을 전했다.

이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



2025년 4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

익명	30,000원	Albert Jang	700,000원
김경미	10,000원	배여리	500,000원

• 생명존중기금(의료원위임)

익명	50원	김학욱	10,000원
김동을	매월 200,000원	박은호	5,284,680원
이중숙	50,000,000원	이희주	10,000원
전신현	50,000,000원	최미화	매월 10,000원

• 가톨릭메디컬엔젤스 발전기금

CMC 신용협동조합	110,000,000원
------------	--------------

대학(성의교정)

• 옴니버스 파크

(주)더블유엔에이치	1,000,000원	주천기	500,000원
------------	------------	-----	----------

• 교육팀 발전기금

평화를이루는사람들	10,000,000원
-----------	-------------

• 일반대학원 장학금

박은호	5,000,000원
-----	------------

• 의과대학 장학기부금

이동원	100,000,000원
-----	--------------

• 안과학교실 발전기금

주천기	4,500,000원
-----	------------

• 유한재단장학금

유한재단	9,000,000원
------	------------

서울성모병원

• 성모자선회

김문희	1,000,000원	이수형	10,000,000원
이재일	20,000,000원	이준	매월 5,000원
이현규	매월 1,000원	정성현	매월 10,000원
최우성	매월 10,000원	한경신	매월 1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오지민	매월 5,000원	이선정	매월 10,000원
정선혜	매월 5,000원	정재봉	10,000,000원
홍영희	매월 10,000원		

• 위임(기부자별관리)

(주)사피엔스인	500,000원	김봉희	1,500,000원
이복희	20,000,000원	캐슬링닷컴	매월 500,000원

• 위임(선입선출관리)

권영욱	160,000원	조성호	10,000,000원
-----	----------	-----	-------------

• 헌물(자정기부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22,800원
슈퍼마켓 플라워	1,875,000원
유재현	475,880원

• 사회사업팀 발전기금

김승희	100,000원	김형준	500,000원
-----	----------	-----	----------

• 연구기금(위임)

김중원	10,000원	황중하	매월 50,000원
• 소아 BMT(기부자별관리)	최슬기	5,000,000원	
•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술술바람) 발전기금	손채영	50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전두병

전두병	5,000,000원
-----	------------

• 성모자선회

고은화	매월 30,000원	심릿다	매월 30,000원
원유선	매월 10,000원	이지윤	매월 30,000원
이혜인	매월 10,000원	황보윤	매월 10,000원

• 여의도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고다경	10,000,000원	김재한	박경옥 2,000,000원
-----	-------------	-----	----------------

의정부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주식회사 하이그라운드	3,000,000원	
• 성모자선회	나상현	매월 5,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윤준원	매월 10,000원	김유성	240,000원
-----	------------	-----	----------

• 의정부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풍동성당	10,138,650원
------	-------------

부천성모병원

• 성가자선회

곽지현	100,000원	김창숙	100,000원
부천성모_성가자선_익명			30,000원
부천성모병원 간호사회			1,000,000원
김혜련	매월 10,000원	박성빈	매월 5,000원
심소리	매월 10,000원	유수연	매월 5,000원
이재운	매월 5,000원	이정인	매월 5,000원
최나운	매월 5,000원	하수영	매월 5,000원

은평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안남영	10,000원	서클라라	10,000,000원
정선미	2,000,000원	자병수	10,000,000원

• 은평성모자선회

김홍익	매월 20,000원	정현정	매월 3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은평성모수원	500,000원	
故김순례	300,000원	황영희	100,000원

• 은평성모병원 자선기금

익명	50,000원	이숙자	500,000원
----	---------	-----	----------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6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한국형 정밀 의학 토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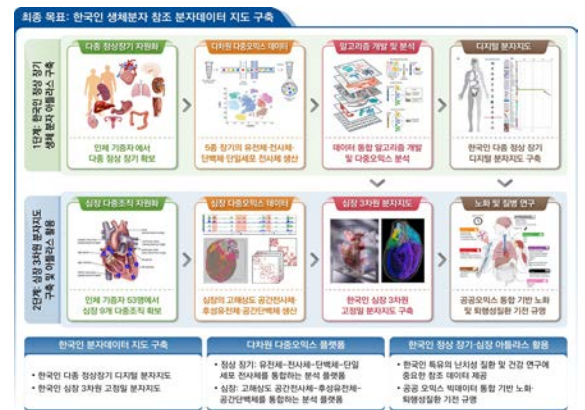
정연준 교수 공동 연구팀,
디지털 분자지도 프로젝트 국책과제 선정

한국인의 인체 장기를 세포 하나하나 단위까지 정밀하게 분석해 디지털로 저장하는 '생체 분자지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한국인만의 고유한 유전자 정보와 생물학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한국형 정밀 의학 발전의 핵심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초청 밀의학사업단 정연준 교수(연구 책임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와 이해옥 교수, 김인범 교수(해부학교실), 정승현 교수(생화학교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김민식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인경 교수 공동 연구팀이 한국연구재단의 국책사업인 '한국인 디지털 분자지도 프로젝트'의 심장 특화 과제에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향후 5년 반 동안 총 97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사업으로, 10종 이상의 한국인 인체의 다양한 정상 장기를 세포 단위로 분석해 디지털로 기록하고, 이를 공개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심장, 뇌, 폐, 골격근, 신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5대 장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연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한 사람의 동일한 조직세포에서 생명 현상의 핵심 사슬인 유전체-전사체-후성유전체-단백체 정보를 모두 연결한 형태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참조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인프라 지원을 받아 추진된 것으로, 정연준 교수가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초정밀의학사업단은 인체 조직 기반의 고정밀 생명정보 분석, 세포 단위 정밀 의학 연구,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등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성빈센트병원 치매 치료제 처방의 정밀도 높이는 AI 솔루션 활용

정신건강의학과 엄유현 교수팀,
'2025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엄유현 교수팀이 오는 11월까지 최대 2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AI 기반 뇌

영상 분석 솔루션을 활용한 치매 정밀 치료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성빈센트병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AI(인공지능)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관에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이는 AI 기술이 필요한 수요기관에 바우처 형태로 최대 2억 원을 지원, AI 솔루션 공급 기업의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뇌 질환 진단·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뉴로핏의 '뉴로핏 아쿠아 AD(Neurophet Aqua AD)' 솔루션을 이용해 치매 치료제 처방의 정밀도를 높이고, 치료제의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구팀은 AI 기술과 임상 전문성이 결합 된 이번 연구가 향후 국내 치매 진료 환경의 혁신적인 전환점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유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항아밀로이드 단일항체 치료

제 시대에 정밀 진단과 부작용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AI 기반 뇌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개별 환자의 뇌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엄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AI를 활용해 치매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도는 국내에서도 드문 사례"라며 "성빈센트병원이 정밀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적 흐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유현 교수

인천
성모

'임상간호연구 간호학술대회' 개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간호부는 최근 개원 70주년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본원 신관 15층 마리아홀에서 '임상간호연구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6개 팀이 임상 현장에서 수행한 간호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우수 논문으로는 간호부 12병동의 '수술 전 교육이 대장암 수술 환자의 불확실성과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선정됐다. 이 논문은 환자 중심 간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현장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전문성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사를 전했다. 간호처장 이은정 수녀는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전 세계 간호사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간호의 길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
성모

어버이날 맞이 나눔 활동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사회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원목실은 8일 오전 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어버이날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패유를 기원했다. 또한 사회사업팀은 지역 사회 무료 급식소인 '대전 성모의 집'을 찾아 물품 후원을 비롯해 배식 지원 등 노력 봉사를 실시하고,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는 비누 카네이션과 편지를 전달했다.

병원장 강전용 신부는 "5월 가정의 달 연휴와 어버이날 모두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사회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맞춤 의료로 새 희망을 주는 병원
Personalized Health Care & New Hope
서울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588-151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한민국 1등을 넘어
글로벌 리더병원으로

JCI인증획득 AAHRPP인증획득 2023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기업

www.cmcseoul.or.kr



제1기 연구중심병원 인증 획득!

“글로벌 선도 연구의 중심!”

융합 연구를 위한 혁신과 성장으로 미래 희망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
Korea Research-Driven Hospitals



당신의 건강 파트너!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sungmo.or.kr

한 단계 진보한 암치료

최신 고정밀 **방사선 암치료기** 본격 운영

TRUEBEAM



▶ Youtube meet the Yeouido St. Mary's Hospital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

의정부성모병원, 협력병원에 부활 계란 바구니 전달!



200여 곳의 협력병원 및 지역 유관기관에 부활 계란 바구니 나눔
협력병원과의 긴밀한 연대 통해 건강한 의료 생태계 만들어가



내시경적 연하검사 6,000례 돌파!

경인지역 대학병원 최다 기록

뇌졸중 및 고령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 대상 정확한 검사 통한 맞춤 치료 선도



내시경적 연하검사

(Fiberopt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FEES)

코로 굴곡성 내시경을 통과하여 연하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연하장애(섭식장애, 삼킴 장애, 신경학적 문제로 입에서 목으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는 장애)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검사임. 중환자실 환자도 이동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며, 중증 연하장애 환자도 진단과 치료 가능.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 선 교수

전문 진료 분야 | 연하장애, 연하 재활, 삼킴장애, 뇌졸중 재활, 인지 재활, 뇌신경 재활, 경직, 뇌 병변
진 료 시 간 | [오전] 화, 금 [오후] 수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ep.or.kr

은평성모병원 보이는 ARS 서비스

보라 OPEN



1811-7755
콜센터 연결이
어려울 경우 '보라'를
이용해 보세요.

보이는 ARS 보라

보이는 ARS '보라' 특징점!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24시간 **간편한** 진료 예약
- 👤 증상 및 진단명 입력만으로 의료진 검색 후 **정확한** 진료 예약
- 🏥 진료 예약 확인, 변경, 취소는 물론 다양한 병원 안내를 **한눈에** 해결

